



[산업] 공룡시대 살아남기 신개념 게임 '듀랑고' 넥슨의 도전 09



[산업] 에쓰오일 "5조 프로젝트 완공 디지털 회사로" Life 10



79개 전문대 한자리에... "발품 팔면 선택 폭 넓어진다"

내일까지 aT센터에서 진행 정시 모집인원 1만6천명 늘 듯

대학별·현직 교사 상담 가능해 진로 정보 해답 얻을 수 있을 것

"인터넷으로 입학정보 찾을 땐 답답했는데, 학교 선생님과 직접 상담을 해보니 확신이 들어요."

9일 오전 10시 양재동 aT센터. 전국 79개 전문대학이 한자리에 모였다. 4년제 일반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다. 취업률에서 우위를 보이는 전문대 진학 열기가 느껴진다.

올해 전문대 정시모집 인원은 136개 대학 2만7999명으로 전체 인원의 13.6%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시모집 이월인원을 감안하면 실제 모집인원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교협은 수시모집 인원의 약 10%가 정시 모집으로 이월돼 실제 모집인원은 약 1만6000여명 정도 증가될 전망이다.

박람회장에는 친구와 함께 온 수험생과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방문한 학생, 아버지나 어머니 등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수험생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학과를 문의했지만, 일부는 자신의 성적으로 갈



9일 오전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수 있는 유망 학과나 특성과 학과 합격 여부를 타진했다.

대림대학교 입학전략팀 김시영 씨는 "상담하는 학생들의 80%는 자신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한 학과나 전공을 상담받길 원하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입학을 원하는 학과의 합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에는 79개 대학별 상담부스 외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소속 현직 교사의 상담 부스도 별도로 마련돼 상담이

가능하다. 올해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대학별 환산점수도 주요 변수다.

이날 상담에 나서는 예산예화여자고등학교 권혁일 교사는 "올해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다만, 수험생 절반정도가 3~4등급에 속해 있어, 대학별 환산점수가 후하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 교사는 "발품을 팔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갈 대학이 더 많아진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입학정보박람회' 모습. /사진=손진영 기자 son@

다"면서 "박람회에 직접 나와 대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과 상담하다보면 자신의 진로는 물론 어느 대학에 가야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4년제 대학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 이날 진행되면서, 오전 중에는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덕대학교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이 대학 비서학과 지원을 결정했다는 김현주(21) 씨는 "비서학과는 업종별 취업의 폭

이 넓고 해외 기업 취업의 길도 많은 것 같아 지원할 생각"이라며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땐 답답한 부분이 많았지만, 직접 대학 관계자로부터 상담을 받으니까 어디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줄었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실내건축과를 지원 예정인 김민지(21·가명) 씨는 "지난해 수능 성적 기준을 통해 합격 가능성을 직접 얘기들이니 믿음이 간다"면서 "직접 나오길 잘했다"고 했다. 김 씨는 4년제 일반대학 관광 계열 학과도 지원할 계획이지만, 통학이 편리한 수도권 전문대에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했다.

박람회를 준비한 전문대교협 황보은 사무총장은 "학벌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취업조차 어렵다"면서 "전문대 입학률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문대 정시 입학정보 박람회에는 수도권에서 인덕대, 명지전문대, 대림대, 동양미래대, 인하공전, 연성대 등이 지역별로는 대구 계명문화대와 영남이공대, 경북 대경대, 대전 우송정보대, 충남 아주자동차대, 충북 강동대, 세종 한국영상대, 전남 고구려대 등 전국 주요 대학들이 대거 참가했다. 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되고 참가비는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등 자신의 점수를 짐작하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LG화학·도로공사 등 인턴채용 문 활짝

채용연계형 인턴채용 관심 ↑ 성실·적극적인 자세 중요해

올해 상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채용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구직자들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인턴사원 모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제공한 2018년 채용연계형 인턴채용 정보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한국도로공사, 하나투어, 세아베스틸, 조아제약 등이 채용형 인턴을 채용한다.

LG화학은 '2018년 상반기 산학협력 인턴사원'을 기초소재사업본부, 전지사업본부, 정보전자소재사업본부, 재료사업본부, 생명과학사업본부 등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정규 4년제 대학을 올해 8월 졸업예정자나 수료자는 지원할 수 있다. 인턴십 종료 후 졸업요건을 갖추면 올해 7월 1일 입사가 가능해야 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회화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 오는 1월 16일까지 LG그룹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서류접수를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이다. 경영, 법정 등 행정직과 토목, 건축, 전기, 조경, 기계, 설비, 전산, 전자통신 등 기술직을 선발한다. 4개월 내외로 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적정수준 이상인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지원자격에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이 없다는게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기업/공사	모집 부문	접수 기간
LG화학	2018년 상반기 산학협력 인턴채용	2017.12.27 ~ 2018.01.16
한국도로공사	2018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2018.01.03 ~ 01.12
하나투어	2018년 상반기 대졸 공채연계형 인턴	2017.12.29 ~ 2018.01.12
세아베스틸	2018년 채용 전환형 인턴사원 모집	2018.01.08 ~ 01.14
조아제약	2018년 정규직 전환형 인턴 공개채용	2018.01.08 ~ 01.17

/사람인

특징이다. 다만 토익, 텡스, 토플, 오픽, 토익스피킹 중 하나는 필수 어학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기술직의 경우 선발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원서는 오는 1월 12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하나투어는 대졸 공채연계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근무기간은 2월~4월로 총 3개월이며, 현장근무와 과제수행, 면접 등의 평가를 통해 공채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모집분야는 영업과 상품개발기획이다. 관광동역안내사와 여행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제2외국어 능통자, 공모전 및 각종대회 수상 경력자 등을 우대한다. 서류접수 기간은 1월 12일까지다. 하나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세아베스틸 역시 채용 전환형 인턴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기획, 전략, 해외영업, 구매 등이며, 부문별로 전공 우대사항이 있다. 근무기간은 2월~4월이며, 3개월 인턴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 4년

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2차면접, 채용검진을 거친다. 1월 14일까지 세아베스틸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조아제약은 2018년 공개채용으로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우수탁사업팀, 학술팀, 신제품연구팀, 공무팀, 약국영업부 등이다.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최종 면접의 전형절차를 거치며, 2개월 간 정규직 전환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선발된 인원은 서울본사를 비롯해, 수도권, 대전, 호남, 경북, 경남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서류접수는 1월 17일까지 사람인 즉시지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인턴 과정은 기존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기에 적합한 인재인지, 해당 업무를 잘 담당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만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스마트폰 끄고 글을 써요

9일 오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열린 '2018 이화 에크리' 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글을 쓰고 있다. /연향뉴스

올해 건강 키워드는 '가심비', '포미족'

젊은층, 건강에 대한 투자 늘어

2018년 무술년을 맞아 건강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가심비' '일코노미' '포미족'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비타민하우스는 올해 건강 분야의 트렌드를 예측한 결과 ▲가심비보다 가심비 ▲일코노미(1인 가구와 이코노미의 합성어) ▲나를 위해 투자하는 포미(For Me)족 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가심비(가격대비 성능)를 넘어 심리적 만족까지 제공해주는 '가심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불황기에도 자신에 대한 투자에는 지갑을 열고 있다. 심리적 만족과 안정을 주는 제품에는 보다 과감해지는 소비패턴도 보이고 있다.



/비타민하우스

비타민하우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자 실태조사에서도 "본인이 섭취하기 위해 구매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준다.

또 다른 트렌드인 '포미족'도 건강식품 분야의 주요 키워드다. 몰로(YOLO)족, 자존감 세대 등의 추세에서 보듯이 세대가 젊을수록 자신을 위한 투자에 아끼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